

### 목어 '을인'이 남긴 것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얼마 전에 끝난 모 방송의 인기드라마 '을인'은 높은 시청률과 함께 갖가지 뒷얘기를 낳았다. 카지노라는, 우리에게 조금 낯선 소재를 배경으로 남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과 배신, 기업 경영을 둘러싼 음모와 정경유착에다 조직폭력배 이야기가 얽히면서 드라마는 별 군더더기 없이 스피디하게 전개되었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남녀 주인공의 멋진 키스장면으로 끝을 맺었다. 라스베가스 현지 촬영에 의한 이국적 풍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카지노, 호텔 등의 화려한 내부시설 그리고 쇼걸의 화려한 율동과 현란한 무대 등은 시청자의 눈길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치솟은 시청률은 방송국과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졌다는 24부작 '을인'은 폭력의 문제와 더불어 도박을 미화시키고 사행심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하고 말았다. 더욱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기간에 6자리 숫자만 맞이한 인생역전이 가능하다고 떠들어대는 로또 복권의 열풍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는 심한 열병을 앓았다. 초등학교 교실에서까지 카드놀이가 유행하고 학교 앞 문방구에는 갖가지 카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폐광촌의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태백시의 카지노 사업은 노름빚으로 인한 가장과파라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내기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일까, 권력일까, 명예일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이 지닌 엄청난 위력을 감안한다면 시청률에만 신경을 곤두세울 일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화가 나세요?  
만약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을 가로 막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불쾌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는냐고 화를 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한테만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일 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만 장애인을 출입금지 시킨 행위는 명백한 폭력인데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출입이 금지된 사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우리가 언제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느냐고 언성을 높일 것입니다.  
모든 건물 앞에는 통과의림인양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단을 간신히 넘으면 건물 안에 더 높은 계단이 장애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으로 공공건물에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의 장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장식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비 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의 일선으로 사회 5대 차별 해소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편견과 차별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귀희**  
방송작가, 숭대문학 발행인

## 장애인 차별없는 불국토

리 불교계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장식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비 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의 일선으로 사회 5대 차별 해소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편견과 차별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 하였던 것은 다른 아닌 차별받고 있는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불쌍한 중생 가운데 가장 아예며 여겨야 할 중생은 장애인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식물이 아니어서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식물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장애인이 식물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자고, 장애인과 함께 하자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호소는 메아리가 없는 헛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요구하고 그 요구에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세계 장애인의 날', 불교계는...

20일은 유엔이 지난 1981년에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스물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사업 및 단체들은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사들이 일회성에 머물 뿐, 장애인

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정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불교계 장애인 복지단체장과 실무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느끼는 '장애인의 날'을 살펴봤다. <편집자>



◇해성 스님 ◇박은아씨 ◇김작연 씨

### 보길도 댐 문제 타결

완도군과 보길도 상수원 대책위는 최근 보길도와 노화도 상수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중립적인 인사들로 '부흥리 상수원 댐 문제 검토위원회' 구성, 검토위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보길도 부흥동 지역에 상수원 댐 건설의 무리함을 지적해왔으며, 과도한 누수를 개선과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절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 장군속마

### 고려불화 경매가 남긴 여운...

국내 미술품 경매에 처음 나온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5억2천만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130~150여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고려불화는 일본에 가장 많고(100여점) 국내에는 10여 점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나마 불교계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한 점도 없다. 아직 누가 사았는지 모르고, 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성보박물관에 고려불화 한 점 모실 수는 있지 않겠나...

### ■범종단 차원의 지원책 마련 절실

불교 경전 자체가 복지경전이다. 소외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를 안타깝게 여기셨음을 알게 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옛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나율', 정신지체장애인이었던 '출리반달', 지체장애인이었던 '웃다라' 등의 제자들에게 더욱 가슴 아파하며 한없는 자비심을 베풀었다. 이 같이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사상을 근본으로 이제는 장애인 문화·복지사업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에 앞서 장애가 '전생의 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찰에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결같이 '마음 놓고 사찰을 참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애인 불자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높은 법당 문턱만큼이나 이들이 겪는 좌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늦지 않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종단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다. 불교계 장애인복지관과 종단을 아우르는 '장애인 복지 운영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전국 사찰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경전 및 수화통역사 양성 △장애인 포교사 제도 실시 등을 정책적으로 담아내 장애인 포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공간 배려, 신도들의 따뜻한 손길 필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사찰은 누구에게나 항상 문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함께 절에 편안하게 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절은 도시보다는 산에 많이 있다. 절에 가려면 산을 올라야 하고, 산을 올라 도착하면 계단을 올라 신발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야 한다. 도시에 있는 절도 그 예는 다르지 않다.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 아닐지라도 법당에 이르는 길은 장애인들에게는 '가지 못 할 길'이 되기 쉽다.  
장애인들이 위해 사찰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석을 외부에 별도로 만들어 본다거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식당의 전용석 등이 필요하다. 또 행동이 느리다고 재촉하지 않는 주변 신도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다운 손길도 쉽게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 장애인들이 꼭 가고 싶은 전통 사찰이 되고, 종교를 떠나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불교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다.  
나는 많은 장애우들과 함께 사찰에서 차를 마시며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사찰에 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불자라면, 사찰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장애-비장애'라는 구별 없이 똑같은 것이다.

### ■마음 놓고 부처님 정법 들을수 있기를...

불교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그래서인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나 같은 장애인을 위해 행사를 준비한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찰의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나의 원만한 인연 주안 사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사찰이지만 나 같은 장애인이 절을 다닌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로서는 절에 가려면 큰 맘 먹고 나서야 할 정도다.  
절에 갔을 때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화장실이다. 재래식 변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절은 너무나 먼 곳이다. 공양을 할 때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불교가 이런 장애인들을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그들도 부처님 정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타종교의 경우에는 예찬도 풍부하게 지원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불교는 너무 이 부분에 소홀한 것 같다. 듣자하니, 서울 강남 불은사는 보우계 때 장애인노인들을 초청한 행사를 성대하게 열고 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사찰에 참배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한다.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원장)

박은아(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충무기획팀장)

김작연(서울 강북구 수유동·지체장애1급)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정확한 책으로 3년에 걸쳐  
검증되고 있습니다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정보완본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냅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향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뱉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을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시식·굿·부족)을 행해 효과가 있었는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불을 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육임 신수비결(身數秘訣)

찾아온 시간이나 떠난 알아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나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시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제 취직 승진 매매 입신 가솔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 하십니까?
-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몰라 애로를 겪습니까? 이책이 해결해 드립니다.

▶ 각종 카드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卜問